



[시장동향] 유럽, 역대 최악의 폭염에 유제품 가격 상승 전망

- 원유생산량 감소에 따른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



유럽 전역에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이 이어지면서 유제품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옥수수 재배가 10년 만에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며 가축 사료 부족난이 악화되고 있으며, 영국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사료작물 재배는 물론 가축 급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U의 곡물 가축사료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2007년 이후 가축사료 수확량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료 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료 공급량 감소 및 폭염은 젖소의 원유생산량 감소를 야기시켜 우유 및 치즈 등 유제품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출처 : independent.ie, 8월 23일 >

[지속가능] 알라푸드, 탄소중립 실현 위한 로드맵 마련

- 2030년까지 63% 저감, 2050년에는 탄소 제로화 추진



알라푸드 영국지사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최근 알라푸드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기후 협약에 따라 목장부터 가공 및 유통까지 전체 공급망을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5년 대비 63%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의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젖소 사료의 단백질 급여량 조절, 비료 사용량 저감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젖소의 식단에 16%의 단백질을 함유시켜 원유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은 물론 목장내 탄소배출량을 8%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알라푸드는 지난 7년 동안 목장에서 14%(원유 kg당), 가공단계에서 24%, 운송 및 물류에서 25%, 포장 공정에서 18%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 출처 : farminguk.com, 8월 23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